

교환학생 보고서

이름	한글	이승준	소속(학부/과)	기계설계공학과
파견 학기	2019년 2학기		파견 국가	독일
파견 대학	Hochschule Heilbronn			

❖ 경험보고서는 이후 파견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성실히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환학생에 관심 갖게 된 계기 및 지원 동기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쌓고자 유럽 배낭여행을 계획하고 100일 동안 혼자 배낭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기억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유럽을 갈 기회와 현지에서 현지인들과 같이 살아보자라는 생각으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어졌습니다. 금오공과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도중 제가 가장 가고싶은 나라 및 도시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였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MOU가 체결되어있지 않아 오스트리아와 최대한 비슷한 문화와 환경을 가진 독일로 그 중에 전공과 잘 맞는 공학이 잘 발달된 바덴뷔르템부르크 주의 하일브론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일브론 같은 경우에는 근처의 유명한 공학적 대기업들이 많은데 하일브론 바로 위의 도시 네카줄름에는 아우디 공장이 있고 하일브론에서 기차타고 1시간 이내에는 벤츠와 포르쉐 본사 및 공장이 위치해 있어 벤츠 박물관의 경우에는 오리엔테이션때 견학을 가고 아우디 공장은 ASE를 전공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학기 중에 과에서 자체적으로 투어를 진행합니다.

■ 출국 전 준비 사항과 주의 할 점(상대교 서류준비, 비자발급 절차, 항공권 구입, 수강신청 및 기숙사 신청 내용 포함)

먼저 지원할 때 파견 국가의 분위기나 문화를 어느정도 파악하고 가는 것이 큰 트러블 없이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거 같습니다. 또한 교환학생을 갈 때 모든 수업과 생활이 영어와 현지어로 생활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영어 회화와 영어 실력을 가지고 가는게 수업을 이해하고 현지 생활을 즐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파견하기 전 하일브론 대학교에서 여러 가지 준비 서류를 인터넷으로 업로드 하는데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제출할 땐 큰 어려움 없이 문서 양식대로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숙사와 보험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는 현지에서 플랫을 얻어서 생활이 가능하지만 가격이 기숙사 월세에 2배에 육박해서 기숙사에 사는게 비용도 절감되고 편리합니다. 보험은 현지에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가격이 싼 사설 보험도 가능하지만 독일 공식 보험인 AOK나 TK가 가격은 비싸지만 모든 면을 커버해주니 보험사 간의 가격 차이라던지 큰 차이는 없으므로 둘 중에 하나 골라서 가입 신청서를 메일로 받으면 신청하는게 좋습니다. 보험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0유로 정도이고 기숙사 월세는 2인실 기준 달에 297유로입니다. 독일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90일동안 무비자로 여행이 가능하므로 입국할 때는 비자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착해서 6개월동안 생활하기 때문에 비자 발급을 받아야하지만 무비자로 입국하면 하일브론 대학교 국제 교류원에서 오리엔테이션 진행할 때 전체 비자가 필요한 교환학생들을 데리고 시청으로 가서 비자와 주거지 등록을 하므로 걱정없이 짐만 잘 챙겨서 입국하면 됩니다. 항공권 구입은 저는 루프트한자를 전에도 이용해서 아이디어가 있어서 루프트한자 홈페이지에서 직항으로 예약했는데 경유와 가격차이도 얼마 나지 않고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내리는데 프랑크푸르트에서 하일브론은 기차로 2시간으로 매우 가까운 편이라서 프랑크푸르트 공항 도착으로 하는게 기숙사 가기 용이합니다. 항공권 구입은 교환학생 합격 후 바로 검색을 시작해서 3달 전쯤 직항 프푸 인천 왕복 82만원에 구입했습니다. 하일브론 대학교 수강신청은 학기가 개강한 후에 시험을 등록하는 기간에 등록을 하고 시험을 쳐야지 그 과목을 이수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따로 수강신청은 없고 시험을 학기 중에 학교 홈페이지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사전에 제출하는 수강 신청 계획 같은 경우는 강의 계획서를 보고 ECTS 계산해서 그냥 제출해도 나중에 듣고 싶은 과목을 들을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생활비는 독일에 도착하게 되면 단체로 은행에 가서 독일 비자를 발급받을 때 필요한 슈페어콘토라는 계좌를 개설하게 되는데 독일에 체류하는 달 * 720유로를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비자를 발급할 수 있어 720*6 정도 되는 돈을 슈페어콘토에 묶어두고 매달 720유로씩 받는 계좌를 하나 개설해야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파견대학 소개(크기, 지리적 위치, 기후, 주변 환경 내용 포함)

Hochschule Heilbronn은 이번에 신축된 bildung campus와 원래 존재했던 Sontheim campus로 2개로 나뉘어져있는데 경영이나 경제쪽인 BU 전공을 선택한 경우에는 빌둥 캠퍼스에서 모든 수업이 이루어지며 기숙사에서는 30번대, 40번대 버스를 타고 약 20분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해있습니다. 빌둥캠퍼스는 다른 학교와 회사들과 캠퍼스 공유하며 여러개의 빌딩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손하임 캠퍼스는 하일브론 본 캠퍼스로 기계와 관련된 공학쪽 수업들이 모두 이 캠퍼스에서 진행됩니다. 국제교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손하임에 있었지만 캠퍼스가 신축되면서 빌둥 캠퍼스로 이전하였습니다.

하일브론은 인구가 약 17만정도로 대도시는 아니지만 하일브론이 속해있는 바덴뷔르템부르크 주에서는 대도시로 구분됩니다. 백화점, 패스트푸드, 스타벅스 등 웬만한 것들은 입점해있습니다. 위치상으로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약 두 시간, 슈투트가르트까지는 40분, 슈투트 가르트 공항까지는 1시간 조금 넘게 걸리는 공항을 가기에는 상당히 용이한 위치에 있습니다. 독일 전체로 보면 남서쪽에 위치해있으며, 화이트 와인을 재배하는 포도밭이 주변에 많아 맥주뿐만 아니라 와인도 싼 가격에 굉장히 좋은 품질의 와인을 마실 수 있습니다. 기후 같은 경우에는 제가 8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있었지만 10월 11까지는 비가 잘 오지 않고 맑고 여행가기 좋은 날씨가 지속되고, 11월을 넘어서는 큰 비는 아니지만 이슬비가 많이 내리고 해를 보기 힘들 정도로 구름이 매일 끼어 여행할 다니려면 11월 중순 전까지 다니시는게 좋습니다.

하일브론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면 9월 중순부터 약 2주간 weindorf라는 와인 페스티벌이 열리고 이 시기에는 시청 앞 광장에서 와인 농장에서 나와서 와인을 시음하고 사람들끼리 이야기하고 춤추는 즐거운 분위기의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그리고 같은 주에서도 잘사는 도시로 유명해서 사람들도 여유롭게 다친절한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트램을 이용해서 주위의 큰 기차역인 karlsruhe와 기차로 40분 거리로 stuttgart의 역으로 갈 수 있고, 플릭스버스 정류장이 있어 다른 나라나 큰 도시로 가기 용이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 하일브론은 독일에서 공원으로 유명한 도시로 2019년 기준으로 도시 정원 박람회도 개최하여 공원이 잘 가꾸어져있어 산책과 피크닉을 하기도 좋습니다.

■ 수업 및 학사 관련 사항(수강과목 포함)

수강신청 같은 경우는 교환학생으로 가기 전에 미리 수강과목을 제출하지만 미리 제출하는 수강과목 신청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 이유는 현지에 도착해서 수강신청을 따로 하지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수업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은 다음에 학기가 시작하고 한 달 후쯤 있는 시험 신청에서 신청한 과목을 패스해야지 그 과목을 수강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견 하기 전에 수강신청 과목 목록을 제출하는 것은 어떤 과목이 있고 얼마나 들을지 미리 정해놓는 계획표 같은 의미이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독일은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학기가 삼주 늦게 시작되고 학기도 늦게 끝나는 편이다. 내가 파견갔던 학기를 예를 들면 9월 3번째 주에 학기가 시작해서 1월 3번째 주까지 수업을 진행한 후 수업은 종강이 되고 그 다음 주부터 약 4주간 시험만 치는 시험 기간에 들어가서 2월 14일이 정규 종강일이였다. 물론 그 전에 시험이 다 끝난다면 한국으로 돌아와도 되고 여행을 가도 된다.

수강과목

° Powertrain

이 과목은 현지 대학생과 교환학생이 같이 듣는 수업으로, 자동차의 내연 기관에 대한 수업이다.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고 교수님께서 미국에 계시다 와서 그런지 발음과 표현력이 영어권 국가에서 온 학생들과 비슷할 정도로 매우 잘하신다. 수업 내용은 내연 기관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어서 조금 어려웠지만 과년도 시험 문제들이 강의지원시스템에 답안지와 올라와있다. 현지 학생과 교환학생은 다른 시험지로 시험을 본다. 다만 과목의 양이 피피티 양이 만만치 않고 조금 많다고 느껴질 수 있다. 진도를 많이 빼 시기 때문에 수업을 놓친다면 피피티를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 하지만 교환학생 시험지는 어렵지 않게 내는 것 같다.

°Powertrain Lab

위에 파워트레인 수업과 연결된 실습(?) 같은 수업인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내연기관에 관해서 자동차를 설계한다. 하지만 신청은 했지만 원래 정해져 있던 수업시간과 다르게 수업시간이 변경되어서 수업을 듣지 못했다. 수업을 듣다가 시험을 포기하는 사람이 조금 있는 편

° Technical English

이 수업은 학교에서 파견 전에 보내주는 목록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ASE에서 하는 수업으로 약간 공학 도들을 위한 공학 영어를 설명해주는 수업이다.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며 교수님께서 러시아 분이셔서 약간의 러시아 엑센트는 있지만 영어도 잘 하시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수업 끝날 때 앞에 교수님의 노트에 이름을 적고 가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름이 많이 적을수록 나중에 점수를 받을 때 원래 점수보다 더 올려서 주신다. 수업은 1주일에 한 번 진행되며 친환경 에너지, 자동차 클러치, 인공지능 등 공학에 관한 것을 영어로 배우는 수업이다. 수업은 ppt와 프린트물로 진행된다.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닌 각자 자기가 설명하고 싶은 공학적 주제를 정해서 ppt로 수업시간에 배운 단어와 그래프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발표한 것으로 대체한다. 시험 날짜는 시험기간에 보지 않고 수업시간에 투표를 통해서 종강하기 1-2주 전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고 마무리한다. 수업시간에 알려준 발표 방법대로 한다면 점수는 충분히 많이 주신다. 수업들 가운데는 인텐시브 코스라고 학기 중에 한 주를 통째로 이용해서 한 학기 수업을 끝내는 수업과 하루를 통째로 네 다섯 번 정도 진행해서 한 학기 수업을 끝내는 수업들도 있어서 잘 이용하면 학점을 단기간에 따기 쉽다.

° Business English for International student B1

비즈니스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과 문법들을 다루는 수업으로 영어로 진행되며 수업 수준은 매우 쉬운 편이다. 문법들은 시제와 가정문 등만을 다루고 표현 같은 경우는 프린트물에 적힌 비즈니스 단어와 비즈니스 할 때 어떻게 써야 더 공적인 표현이고 친밀한 표현인가를 배운다. 수업 내용은 쉽지만 배우면 쓸 일이 많아 유용한 수업이다. 웬만하면 fail을 주시지 않고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정해준 날짜에 각자 자기 모국의 기업이나 존경하는 기업인을 소개하는 ppt 발표를 하는데 이 발표를 하면 전체 성적에서 10점은 받아서 출발하기 때문에 시험을 못쳐도 fail은 하기 힘들다. 시험은 수업 마지막 시간에 친다. 교수님께서 매우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추천하고 싶은 수업이다.

° German intensive course

이 과목은 겨울 학기에만 열리는 수업인데 교환학생들의 독일어를 시험을 통해서 반을 나누고, 각 레벨에 맞게 반을 구성한 후 독일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독일어를 학기 시작하기 전에 가르치는 과목이다. 국제 교류원에서 이 인텐시브 코스랑 오리엔테이션도 같이 하기 때문에 선택적 코스지만 듣는 것을 추천하는 수업이다.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교환학생으로 온 학생들과도 친해질 수 있고 독일어를 미리 배울 수 있으며 학점은 3학점짜리이기 때문에 3주짜리 코스지만 들으면 무조건 좋은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어를 못해서 A1으로 배정되었지만 Marion Erb 라는 교수님께서 수업을 해주시는데 독일어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님 중에 가장 착하고 친절하신 교수님이다. 인텐시브 코스가 끝나고도 시험을 다시 쳐서 인텐시브 코스를 듣지 않은 교환학생들을 다 합쳐서 반을 다시 나누는데 이 시험을 치고 원래 들었던 교수님 수업으로 계속 들을 수 있다.

° German course

이 학기중에 진행되는 독일어 수업은 교환학생이라면 필수로 들어야 한다고 알고 있다. 수업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둘 다 진행되며 오프라인 출석률과 시험 성적 그리고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exercise 진행률 모두 어느정도 선을 넘어야 수강 인정이 된다. 8ects짜리 수업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개로 진행되지만 수업이 두 개로 인정되지 않고 한 개의 수업으로 인정된다.

■ 숙소 및 거주 관련 사항(기숙사비, 생활비 내용 포함)

기숙사는 max-planck-strasse 27, 31로 두 건물로 있으며 서로 매우 가까이 붙어있는 건물이다. 세탁실은 31 건물 지하에 위치하고 세탁비는 1.7유로 건조기는 1유로이다. 27 건물은 2인실과 1인실로 이루어진 건물이며 신축으로 건물이 깔끔하고 생활하기 편하다. 31 건물은 들어가보지는 않았지만 2인실 이상의 3인실 4인실 다인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27에 비해서 조금 구식인 것 같다. 생활할 때 모든 한국인들은 27에 살아서 31에는 없었지만 교환학생들도 31에 사는 것으로 보아 랜덤으로 배정된다. 방 배정은 한국인은 한국인끼리 붙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외국인과의 매치될 수 있다. 동성끼리 방을 배정해주지만 무조건 동성끼리 방을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성과 같이 한 방에서 살 수 있지만 각자 방이 있고 부엌과 화장실만 공유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2인실은 하나의 문으로 들어가서 부엌이 있고 또 문을 통해서 각자 방으로 들어갈 수 있다. 기숙사 건물과 기숙사 방은 카드를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데 카드에 방에 놔두고 나온 경우 룸메이트가 문을 열어주지 못하면 평일에는 기숙사 관리인인 하우스마이스터를 통해서 방문을 열 수 있지만 주말의 경우 하우스 마이스터가 출근하지 않기 때문에 관리 회사에 전화를 해서 열어달라고 해야하는데 이 경우 40-50유로의 비용이 발생한다.

기숙사의 월세는 27의 2인실 같은 경우는 297유로로 한 달에 297유로씩 빠져나가고 처음 보증금 450유로가 있다.

생활비는 슈퍼어 콘토에 묶어 놓은 720유로로 생활할 수 있지만 기숙사비 297유로 보험비 대략 100유로 정도를 빼면 생활비로 320유로 정도로 여행을 안 다니고 생활하기엔 그럭저럭 충분하지만 여행을 가게 된다면 독일 계좌 말고 다른 계좌의 돈을 써야할 것 같다. 밥을 사먹지 않고 마트에서 식재료를 구입해서 한다면 물가는 물 6통에 2.5유로, 계란 10개 1유로, 요거트 1키로 2유로 정도로 야채와 과일 고기도 한국에 비하면 매우 싸서 요리를 해서 먹는다면 생활비는 많이 나오지 않는다.

핸드폰 유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흔한 방법은 리들에서 유심을 사서 개통해서 선불 유심을 쓰는 법, 인터넷에 많이 나와있는 알디톡을 사서 선불 유심을 쓰는 법, 통신사에 가서 유심을 사서 이용하는 방법이다. 보다폰에 가서 유심을 쓰는 방법을 많이 쓰던데 인터넷으로도 충전이 가능하고 리들은 매월 약 12유로에 4기가로 한국에서 만큼은 아니지만 유튜브와 sns를 와이파이를 이용하고 꼭 필요한 데이터만 쓴다면 충분하다.

교통비는 버스는 1번 이용하는데 2.4유로로 편도 요금이라기엔 비싼 편이라 학교에서 나눠주는 시메스터 티켓이라는 학생을 위한 한 학기 무료 교통권을 들고 다니면 하일브론 교통권 안에서의 모든 교통은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시메스터 티켓은 학기 시작하면 국제 교류원에서 만들러 가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비를 써야하지만 이메일로 날아오는 교통권 신청 티켓?을 이용하면 시메스터 티켓을 만들기 2주 정도는 무료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버스에서 매번 티켓 검사를 하지는 않지만 검표원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표 검사를 하여 표가 없을 시 60유로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표를 꼭 가지고 있는게 좋다. 슈퍼마켓 위치는 구글 맵에 LIDL, EDEKA, ALDI, NETTO 등 4개의 마트가 기숙사 근처에 있기 때문에 검색을 하고 가면 걸어서 10분 이내 모두 갈 수 있다. 큰 마트로 KAUF LAND라는 마트가 있지만 기숙사에서 걸어서 거리가 조금 있으므로 버스를 이용해야한다. 그 외의 유용한 마트로 시내에 WOOLWORTH라는 생필품 마트에서 베개 이불 수건 주방용품을 살 수 있다. 또 GALERIAKAUF는 백화점으로 옷이나 브랜드 용품이 필요하다면 시내로 가서 구입할 수 있다. 디지털과 스포츠로는 학교 빌딩 캠퍼스와 가까운 MEDIAMARKT와 INTERSPORT에서 살 수 있다.

■ 파견대학 국제팀 프로그램/서비스 및 교환학생 활동 소개

교환학생들을 위한 메신저앱 톡에 들어가면 매일 축제를 할 때마다 올려주기 때문에 그 포스터를 보고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 학교에도 포스터로 무슨 축제가 있는지 며칠 전부터 올려놓기 때문에 보고 축제에 참여할 수 있다. 교환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국제교류원에서 처음 생활에 적응시키기 위하여 주변 도시들을 당일치기로 투어 시켜주는 프로그램과 교환학생을 위한 날 그리고 교환학생들과 멘토를 매치 해주어 멘토와 함께 알아가는 방법도 있다.

■ 학교 부대시설 및 추천 하고 싶은 동아리

하일브론 대학교는 스포츠 동아리가 잘 되어있어 경험한 동아리와 참여했다고 들은 동아리로는 농구, 축구, 배드민턴이 있는데 일단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조금 먼 거리에 체육관에서 이루어진다고 들었다. 모든 스포츠가 대학교 체육관이 없어 다른 학교 체육관에서 하는데 축구는 일주일에 2번 하는데 하루는 실내 풋살장에서 풋살을 하고 하루는 실외 잔디에서 훈련을 위한 연습을 한다고 한다. 농구는 일주일에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시행하는데 기숙사에서 버스를 타고 가야하는 중앙역 부근 학교 체육관에서 실시하고 대학생뿐만 아니라 주위 직장인 고등학생들도 같이 참여하고 초보자 남녀 구분 없이 참여해 초보자는 따로 농구를 알려주는 필드가 있고 3개의 농구장중에 2개의 농구장은 팀을 나누어서 번갈아가면서 진행된다. 체육관도 좋고 농구하는 사람도 많고 실력도 좋기 때문에 가서 농구를 하면 현지 대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사귀기 쉽고 농구 즐기기 좋은 환경이다.

■ 문화적 차이 및 향후 파견 학생들을 위한 TIP

먼저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현지에 사는 현지인들이 먼저 따뜻하게 인사를 걸어줍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본인의 소지품은 항상 의식하고 잘 두어야하지만, 이런 선뜻 먼저 건네오는 친절에 웃으며 답하는 것도 매우 즐거운 현지 생활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독일에서 문제를 많이 겪는 부분이 일처리에 관한 부분인데, 시청, 은행, 학교 행정 등 모든 일이 테어민(약속)을 잡고 가야하고 근무시간도 한국과는 너무 다릅니다. 시청의 비자 발급을 하는 외국인 담당 부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다고 치면 여기는 8시 30분부터 오전만 한다던지 이렇게 한국과는 다른 식이고 은행도 시청도 모두 테어민을 잡지 않으면 가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언제 일처리가 될지 몰라 무조건 약속을 정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일들이 서류 상으로 진행되어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서류를 보내서 다시 서류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약간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런 행정 절차에 관한 팁 말고도 또 있다면 파견 갈 때 화장품, 세제, 샴푸, 생활용품 등을 챙긴다고 짐을 무겁게 하지 마시고, 위에 말했던 물품들은 독일에서 DM에 가면 한국보다 훨씬 너무 싸게 구할 수 있으므로 짐을 가볍게 가져가시고, 의류 같은 경우는 버리겠다는 목적으로 그냥 가져와도 되지만 경험한 바로는 독일 스타일이 한국과 달라서 원하는 의류를 구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정도의 좋은 옷들은 가져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으로 귀국하실 때 택배를 보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독일의 DHL의 국제 배송보다는 네이버의 독한배송이라는 카페를 이용해서 보내는 경우가 DHL보다 비용도 싸고 항공으로 운송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주류같은 경우는 캐리어로 한 병, 그리고 택배로 한 병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2병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에 있는 1인용 밥솥 (1~2만원 사이)를 사서 오시면 싸게 쓰시고 한 학기 내내 써도 돈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오실 때 물론 독일에서도 한국에서 파는 것을 웬만하면 다 살 수 있지만 가장 유용하게 썼던 것들이 실내슬리퍼, 카레가루, 라면이었습니다. 카레가루 같은 경우는 독일 마트에 야채를 볶음밥용으로 손질해놓은 것이 있어 가루만 넣고 만들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 배운 점

교환학생에 대한 저의 예상은 가서 적응하고 그들의 삶에 녹아들기 어려우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었습다. 그러나 제가 느낀 것은 경험 이상의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독일에 오기 전에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을 상상하고 같이 어울려 노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거의 상상했던 모든 것들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행보다 수업을 더 듣는 방법이나 다른 수업을 들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독일인과 독일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모국을 떠나 해외에서 공부하는 것이 어떤지 잘 느꼈습니다. 대학 생활을 하면서 독일가서 다양한 문화와 독일의 수업 방식, 생활 방식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 번 교환학생을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한 번 독일로 가고싶을 정도로 만족스럽고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행하면서도 혼자 여행을 다니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해 자립심도 조금 길러지고 생활하면서 점점 혼자서 모든 일을 두려움 없이 외국인에게도 말을 걸고 해결하는 것을 보고 제 자신도 놀랄만큼 변화가 있었습니다.

■ 기타(사진, 건의사항, 등)

기숙사 부엌



기숙사 방



기숙사 근처 공원

